

Symposium II-2

골이식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설양조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과영역에서 골이식재가 요즘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때가 없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보급, 확대되면서 치과영역에서의 골이식재 사용량과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골이식재에 관심을 가지는 임상가들이 훨씬 증가하였고, 그 관심도도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가골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자가골 이식의 경우에는 채취하는 과정의 불편함과 채취가능한 양의 한계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상품화된 이식골재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그 동안 개발된 골이식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개발 당시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임상에서의 효과와 새로운 골이식재의 등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직 자가골만큼의 효과를 보이는 골이식재는 없는 듯 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생 단계에서의 골형성과정과 말치와를 비롯한 골결손부위에서의 골형성 과정을 비교해보고, 임플란트 표면에서의 골형성 과정을 살펴봄, 지금까지 개발된 골이식재들의 개념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표면개질된 골이식재의 작용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골이식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199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조교수

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조교수